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빈전 2:9~12)

-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9:1-20)

시편 8편은 창조된 우주 가운데서 인간의 자리를 찬양한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편이 순수한 찬양시로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은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구약을 번역한 많은 역본들의 대부분이 9편과 10편을 붙여서 번역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그랬고 제롬이 번역한 Vulgate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편이 찬양시라면 10편은 악인의 성공과 번영을 슬퍼한 애가입니다.

1. 과거 구원을 찬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1절).

다윗은 시편 9편의 처음 두 절에서 말로, 노래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간혹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며 몸에 질병이 생길지라도 범사에 온전히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넘어지고 도, 실패하고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다음의 세 가지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 원수를 이기게 하신 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5절). 다윗이 원수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부터 끊어버리려고 갖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2) 땅 위에서 공의로 심판하심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8절).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자기 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하라는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자기 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악한 자로부터 피난처가 되심

“여호와께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9절).

다윗이 수 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이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2. 미래 구원을 의망 기도

본 시의 1-12절이 과거에 대한 감사라면 13-20절은 미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가 찬양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난다면 후반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1)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공휟을 힘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나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공휟을 구했습니다.

(2)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한다

다윗은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도 구원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15절).

다윗의 통치 훨씬 후에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갖은 계략을 꾸몄지만 그는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자기 마당에 매달았던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같이 심판하셨습니다.

3.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려 함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조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헌당감사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개최

10월 9일(주일) 10:00 한티공원

서울교회를 헌당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14대 헌당감사 행사의 일환으로 교육1국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하는 백일장 사생대회(그림 그리기 대회)를 10월9일(주)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티공원에서 개최한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예술적 소질과 적성을 고취시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내 교회라는 긍지를 갖도록 하는 이번 대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영광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참가범위는 교육1국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속 모든 어린이로 백일장(시, 산문)과 사생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중 한 가지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 필기도구 및 화판, 크레파스 또는 물감은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이 준비하여야 하고 원고지와 도화지는 교회에서 준비한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10월9일(주) 오전

10시 이전에 행사지도 교사들의 인솔 하에 행사장에 입장하여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참여하면 된다.

조직 및 심사 발표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조직>

- 대회장: 이중운 목사
- 지도: 이성득 목사
- 위원장: 최학인 장로(교육1국장)
- 행사분과장: 오광환 집사
- 재정분과장: 최양진 집사
- 심사분과장: 김광룡 집사

<심사일정>

10월9일(주)부터 10월14일(목)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10월16일자 순례자에 입상한 어린이들을 발표한다. 입상한 어린이들은 1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을 한다.

2005 사명자대회 실행위원 발표

10월9일(주)-11월27일(주) 50일간

오는 10월9일(주)부터 11월27일(주)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기도와 전도의 대회인 2005 사명자대회를 은혜 중에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실행위원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 더욱 큰 은혜 임하는 사명자 대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진행분과>

진행: 오광환 김대웅 손태기 김종운 이강인 김광룡 유형석 권장환 장두현 유 신 오치열 안인호 양춘경

통계: 이동권 홍일성 류기찬 한중우 권장철 서경학 이영조 김 훈 오승민

발송: 이난화 광미숙 신선주 박순복 석상화 이혜경 최봉희 이재운 장명순 윤현미 박상희 김보경 박신자 양경실

<홍보분과>

김규태 조철기 전광영 김시환 유태서 김민철 유은경 나소정 오주명 허 숙 정인주 각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섭외부장

<기도분과>

최광성 조동완 한충현 김복승 유근중 김성준 이순례 황정임 조성엽 유을상 박정수 김병용 교구간사, 권사회 임원

<교육분과>

최양진 주경자 교회학교 교역자 및 부장 부감

<안내분과>

이광열 강석우 박병수 서창원 신항범 홍창배 양재인 김광태 김상태 이병현 이종형 한종표 최금숙 나연신 김정임 김미자 이기숙 이은자 김숙자 박순복 송숙영 이미숙 채경희 안내위원 전원

<재정분과>

신용식 장로

사랑의 헌혈 오늘 실시

10시부터 102호실에서, 신분증 가지고 헌혈토록

그동안 계속 공지되어왔던 사랑의 헌혈이 오늘 실시된다. 수많은 사고가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혈액이 필요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헌혈은 우리 성도가 가장 쉽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헌당을 허락하심도 감사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사랑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헌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참여하여야 한다.

송암(松岩)장학금 회사

고 이임희 집사의 유가족(백영희 권사의 자녀 6명-이명근 장로 이성근 집사 이명숙 집사 이명아 집사 이명신 집사 이명주 집사)들은 지난 3월30일 담임목사실에서 고 이임희 집사의 호를 딴 송암장학금을 회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수) 교회에 송암장학금으로 2억4천만 원을 헌금하였다. 앞으로 교회는 이 장학금을 가지고 복음 확장에 헌신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회내외의 우수한 젊은 이들을 찾아 기독교 지도자로 육성케 된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10월, 11월 중에-

교회설립 감사주일을 두 달 앞에 놓고 우리교회는 하나님 찬양으로 넘치게 된다. 이웃초청 화요일음악회가 10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정오에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와 각종 악기들의 협연으로 11월15일까지 6주간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11월13일(주일)에는 초청 감사찬양제가 한국의 모교회인 새문안, 한국의 대표적 교회인 영락, 우리와 같은 노회소속 교회인 소망교회 찬양대를 초청하고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가 출연케 된다. 찬양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연합찬양대를 구성하여 찬양 Festival 이 11월25일(금) 밤에 열린다. 또한 11월26일(토)에는 헌당감사 전야제로 우리교회 젊은이들의 찬양의 합성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다.

제15기 전도학교 진행중

제15기 전도학교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802호에서 열리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바란다.

청년부 가을 야외사경회

-9월 30일(금) 가평에서-

청년부 가을 야외사경회가 9월 30일(금) 저녁 7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 두레마을 펜션이다.

헌당 감사 14대 행사 - 서울교회 헌당을 위한 칸타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이종윤 작시
박정선 작곡

1.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도다
장엄한 우주여
또 하나의 별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네
놀랍고 신기하여라
오묘하고 아름다워라
별 중의 별이여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
나의 백성 창조하셨네

2. 에덴동산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뻐하셨네
아름답도다 선하여라
오곡백과 풍성하고
하늘 찬송 가득하구나
만 왕의 왕 임하셨도다
아름다운 동산에
만유의 주 주께서
첫 번째 교회를
에덴동산에 세우셨네

3. 베델에 오심

야곱의 하나님
광야에 임하셨도다
그 땅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집
돌로 베게 삼아
돌 단 쌓던 곳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노라
베델이여 광야의 들판이여
하늘 사다리 세워진 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약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열리었네

4. 택하신 백성이여

그 이름 아름답도다
너 이스라엘이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상이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내 것 내 사랑이로다

5. 성막에 거하리니

광야에 진을 쳐라
성막을 세워라
구름기둥 인도하리
천군 천사 나팔소리
불기둥 지키시리
크고 놀라운 주의 말씀
성막을 둘러쌌네
열두지파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곳은 영혼의 요람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교회라

6. 성전을 세워라

주는 만물의 주재
권세 능력 있도다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믿음과 은혜로
눈물과 감사로
거룩한 성전 지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 언약계 있도다
거룩 하여라
거룩 하여라
여호와와 영광
성전에 가득함이라

7.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축복있으라 축복있으라
주님의 교회여
내가 나의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 네게 있으니
영원하여라 하나님의 교회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는 너의 머리
너는 나의 몸 나의 지체라

8. 기뻐하시는 교회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사도여
한 어머니로 교회 섬기는
사랑의 자녀라
희생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소망의 나라여
주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정결한 신부라
영화롭도다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는 한 몸
한 교회 이루는
행복한 가족이라

9. 새 하늘과 새 땅

죄인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 십자가
말씀으로 양식 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몸 되신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형제여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오실 주님 기다리네
오실 주님 기다리네
찬란하여라
찬란하여라
하늘나라 면류관
하늘의 별이여

10. 빛을 발하라, 서울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충성된 종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벽 별이여
우리는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이라
세상의 나침반되여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 영광 영광 있으라
영원 영원 영원 하여라



서울교회안타타 작시자, 작곡자 만나다.

I will build my church

오는 11월 27일 헌당 감사 예배에 앞서 11월 25일 찬양 festival에 연주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종윤 목사님의 작시에 박정선 장로님이 곡을 붙인 종교 칸타타(A Sacred Cantata)이다.

이번 헌당 감사 찬양을 위해 오랫동안 시를 구상해오던 이 목사님은 지난 5월 국제신학대학 신학 강의 차 하와이로 출국하셨을 때 그곳에서 시를 완성하셨다고 한다. 이 목사님은 그곳 하와이의 드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셨다고 한다. 지난 날 동네의 조그만 교회만 보아도 부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며 시를 한 편 한 편 완성하셨다고 한다.

이번 헌당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것은 오래 전부터 구상하여 온 것으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 속에 표현하고자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첫 번 교회로부터 신약에 이르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서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목사님은 짧은 헌당시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교회론을 담으셨다.

한편 작곡자 박정선 장로님은 이 시를 받아 7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 한 달간 밤낮없이 작곡에 매달리며 곡을 완성하셨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가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한없이 기도를 했고, 오랫동안 악보를 그려서 손목이 아플 때는 덜컥 겁이나 한

국에 전화를 걸어 동료 장로님들에게 증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윤 목사님은 이번 칸타타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작곡가상과 한국 음악가상 등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며 작곡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정선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기 때문이라며 박 장로님이 이처럼 훌륭한 곡을 쓰실 수 있던 것은 먼저 박 장로님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며 또 하나는 박 장로님이 서울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서울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목사님은 이번 헌당식에 창립 14주년 감사예배, 성경 암송 필사 봉헌, 선교사 파송, 헌당, 사랑의 집 건립의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하시며 서울 교회는 특정인이 아닌 온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기에 헌당을 맞으며 특별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하셨다.

마침 수요 강단에서는 시편 강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마음껏 찬양하자.

허숙(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인터뷰 ②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

11월 27일 (주일) 헌당감사예배와 함께 파송될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일부 이름은 가명으로, 사진은 실지 않는다. 이들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3. 인도/조범연 선교사

조범연 선교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인도선교연구원 에서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인도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 5년 여 동안 인도와 한국을 오가며 인도를 연구한 끝에 "인도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인도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조 선교사는 고백한다. 가족은 김희정 사모와 슬하에 라빈(5학년), 라혜(4학년) 체린(2학년) 이렇게 세 딸이 있다. 조 선교사는 인도 봄베

이에서 남쪽방향으로 승용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뽀네라는 곳에 위치한 초교파신학교인 Union Biblical Seminary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며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 선교사는 인도 북부 아삼지역과 남부 벵갈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바 있다. 영국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인도는 2.5%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힌두교 등 타종교의 영향으로 혼합주의적인 신앙태도를 갖고 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알지만 다른 종교로도 가능하다"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이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다.

◁기도제목>

- 인도위해 헌신할 주의 종들을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 양육된 제자들과 함께 인도 전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 김민철 (편집부)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월)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0회 총회 총대로 오정수, 김광신 장로와 함께 참여한다. 30일(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입총장 피터 릴백 박사의 예방을 받고 신학교육 문제를 의논한다.
- 이사: 9교구 김병호 집사 김현주 집사 옥수동 극동@ T. 2296-0651
- 주간 식당 봉사: 스테반회(9월 25일)권사회(10월2일)
- 금주의 식사: 홍성주 장로 여현진 권사, 우상태 집사 방승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태신자 알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4. 2005 사명자대회 태신자를 많이 잉태하도록
5. 대한민국의 경제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